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72-1호)

여론속의
여輿論論

기획: 2026 미국 - 이란 전쟁에 대한 인식

2026. 3. 25.

담당자 이소연 선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선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미국-이란 전쟁 관심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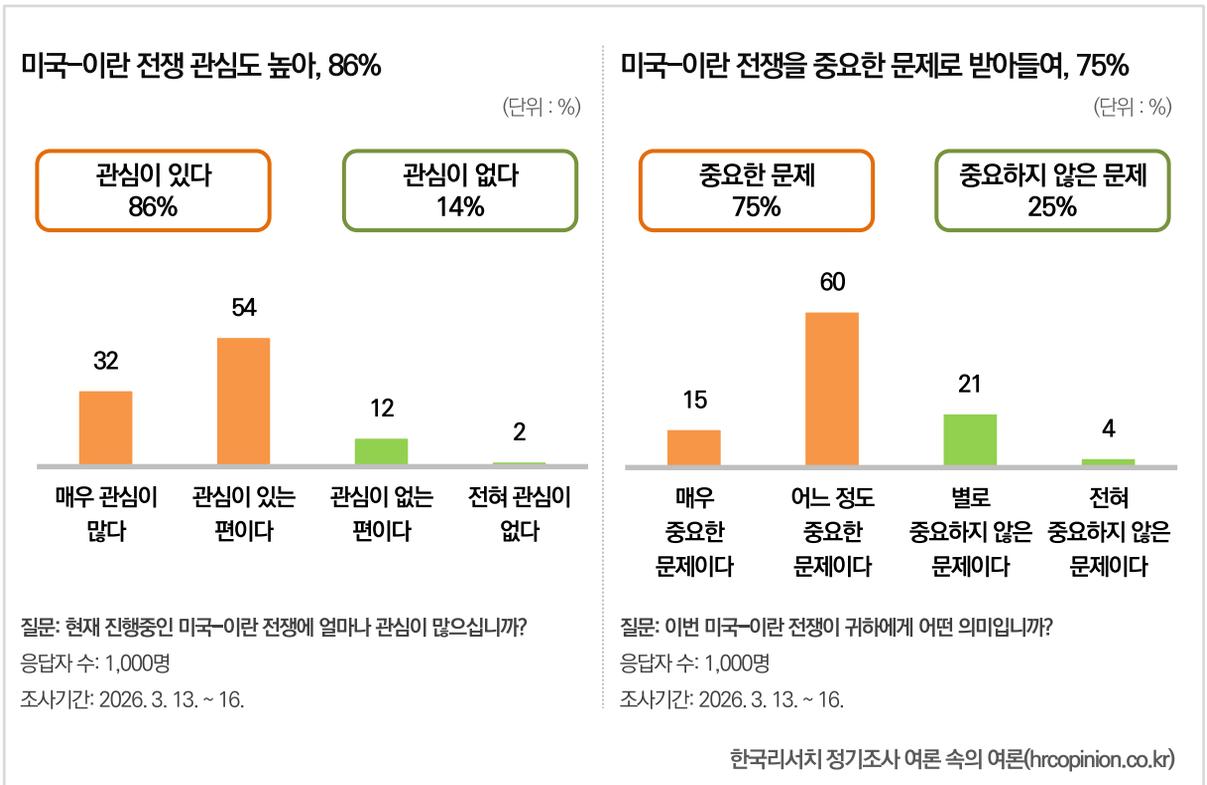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관심도 높아' 86%, 전쟁을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 75%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과 자국 및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이란의 군사시설과 주요 기관을 공격하였다.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등을 대상으로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대응하며, 전쟁이 주변 국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6년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2주 정도 지난 시점인 지난 3월 13일~16일, 이번 전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86%(매우 관심이 많다 32%, 관심이 있는 편이다 54%), '관심이 없다'는 사람은 14%(전혀 관심이 없다 2%, 관심이 없는 편이다 12%).

높은 관심도와 함께 미국-이란 전쟁이 실제로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도 상당수이다. 75%가 이번 전쟁이 나에게 '중요한 문제(매우 중요한 문제 15%,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 60%)'라고 인식하는 반면 25%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 4%,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21%)'로 인식한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번 전쟁에 관심이 있거나 이를 나에게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데에는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과 함께 국제유가·물가 급변, 에너지 수급 불안, 외교·안보 불안, 교민 안전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연령·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관심, 중요도 인식 높아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관심도와 나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은 성별·연령·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전쟁에 대한 관심 수준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인식이 더 높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4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성·연령·이념 성향에 관계 없이 미국-이란 전쟁 관심도 높거나,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형성 세대가 높을수록 전쟁에 관심 있어

(단위 : %)

	사례 수 (명)	미국-이란 전쟁 관심도		미국-이란 전쟁의 의미	
		매우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매우+그런 편)	나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나에게 중요한 문제 (매우+어느 정도)
전체	(1,000)	32	86	15	75
성별					
남자	(495)	42	91	18	80
여자	(505)	22	81	12	71
연령					
18-29세	(150)	21	75	13	70
30대	(150)	25	81	16	78
40대	(169)	28	83	15	69
50대	(194)	33	89	16	77
60대	(179)	36	91	13	75
70세 이상	(158)	45	94	15	83
이념 성향					
진보층	(270)	37	92	19	83
중도층	(386)	22	79	12	68
보수층	(327)	40	90	15	78

질문: (관심도) 현재 진행중인 미국-이란 전쟁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의미)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귀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비고: 이념 성향 모름 응답 제외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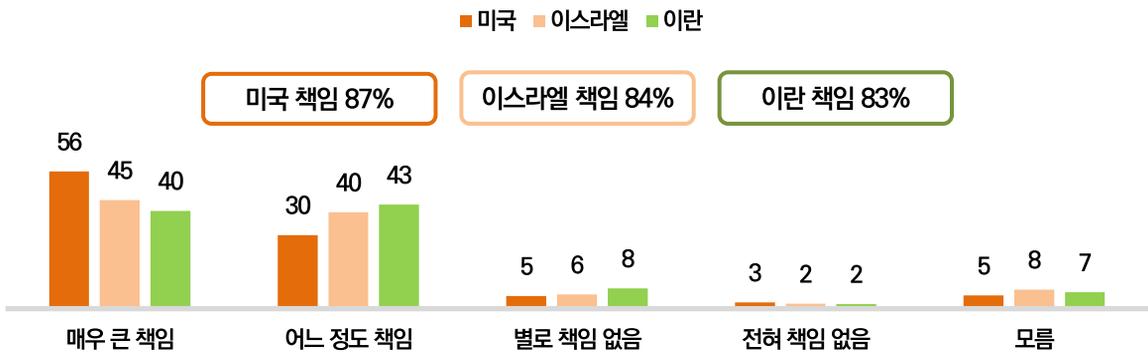
미국-이란 전쟁의 책임국가

미국-이란 전쟁에 미국·이스라엘·이란 ‘모두 책임 있어’, 80% 이상 특히 ‘미국’에 가장 큰 책임 있어

이번 미국-이란 전쟁 발발 책임을 국가별로 물어본 결과, 미국·이스라엘·이란 모두에서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80%대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3개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비슷한 수준을 이룬다. 그중에서도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87%(매우 56%+어느 정도 30%)로 가장 높다. 특히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56%로 과반을 차지해, 미국의 책임 인식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스라엘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84%(매우 45%+어느 정도 40%), 이란은 83%(매우 40%+어느 정도 43%)로 역시 미국과 큰 차이 없이 높다.

미국-이란 전쟁에 미국·이스라엘·이란 모두 책임 있어, 80% 이상
특히 미국에 가장 큰 책임 87%, ‘매우 큰 책임’ 56%

(단위 : %)



질문: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데 다음 각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이란, 이스라엘

비고: 각 국가별 책임을 5점 척도로 질문(책임 있다=매우 큰+어느 정도, 책임 없음 전혀+별로, 모름)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고령층 및 진보층은 미·이스라엘에 큰 책임… 보수층·고관심층은 이란 책임도 높아 무력 사용 안보관 선호층도 미·이스라엘·이란 무력 사용에 다자 책임 인식

세부 집단별로 이번 전쟁의 책임 인식을 살펴보면, 성·연령·이념 성향·전쟁 관심도·국가 안보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는 미국·이스라엘·이란 3국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나타난다. 다만 ‘매우 큰 책임’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집단별로 책임의 무게중심은 다르게 형성된다.

우선 남녀 모두 미국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가운데(남성 55%, 여성 58%), 남성은 여성 대비 이스라엘(남 49%, 여 41%)과 이란(남 45%, 여 36%)에 큰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연령이 높을수록 미국과 이스라엘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특히 30세 이상에서 미국에 대한 강한 책임 인식이 절반 이상으로 높은 반면, 유일하게 18-29세에서 35%만이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한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다른 세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미국 35%, 이스라엘 23%).

진보 성향, 그리고 전쟁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할수록 미국과 이스라엘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군사작전의 정당성·민간인 피해 가능성 등 규범적 판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호의적인 집단**으로, 미국에 큰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44%에 그쳐, 진보층과 격차가 벌어진다.

반면 이란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70세 이상(48%), 보수층(49%), 전쟁에 매우 관심이 많은 집단(48%)에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령층·보수층에서는 미국·이스라엘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쟁 발발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핵·안보 위협 및 이란의 군사적 대응에 다른 집단 대비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흐름이 함께 나타난다. 또한 전쟁 관심도가 높은 집단은 사건 전반에 대한 정보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아, 전쟁의 원인·보복의 연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이란에도 강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쟁에 관심이 없는 집단에서도, 관심 집단에 비해 ‘매우 큰 책임’의 강도는 낮지만 3국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6-70%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사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충돌 자체를 ‘쌍방 책임’ 혹은 ‘복합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일정 수준 존재함을 시사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집단은 무력으로라도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이 강한 만큼, 미국·이스라엘이 핵 위협을 이유로 군사작전에 나선 배경에 일정 부분 공감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 집단에서도 미국·이스라엘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50% 내외로 적지 않고, 동시에 이란에 대해서도 51%가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답해, 군사력 선호 집단 역시 전쟁 책임을 특정 한쪽에만 귀속하기보다 각 행위자의 무력 사용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한다.

**고령층·진보는 미·이스라엘에 큰 책임, 보수·전쟁 고관심층은 이란 책임도 높아
무력 사용 안보관 선호층도 미·이스라엘·이란 무력 사용에 다자 책임 인식**

(단위 : %)

	사례 수 (명)	미국 책임		이스라엘 책임		이란 책임	
		매우 큰 책임 있다	책임 있다 (매우+어느 정도)	매우 큰 책임 있다	책임 있다 (매우+어느 정도)	매우 큰 책임 있다	책임 있다 (매우+어느 정도)
		56	87	45	84	40	83
전체	(1,000)						
성별							
남자	(495)	55	86	49	86	45	84
여자	(505)	58	87	41	83	36	82
연령							
18-29세	(150)	35	72	23	69	38	73
30대	(150)	53	86	38	82	44	81
40대	(169)	59	84	43	81	37	80
50대	(194)	67	93	51	89	33	84
60대	(179)	62	89	56	89	43	86
70세 이상	(158)	58	93	52	93	48	93
이념 성향							
진보층	(270)	78	96	64	95	36	84
중도층	(386)	53	86	43	81	36	79
보수층	(327)	44	81	31	81	49	88
전쟁 관심도							
매우 관심 많다	(318)	65	89	59	90	48	87
관심 있는 편이다	(540)	56	90	42	87	41	86
관심 없다	(142)	40	69	20	62	20	60
국가 안보 정책 방향							
군사력 적극 확대	(284)	54	82	46	83	51	86
군사력 유지	(470)	59	92	47	90	39	88
외교와 국제협력 우선	(178)	62	90	47	86	33	79
모름	(68)	38	61	16	44	24	45

질문: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데 다음 각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이란, 이스라엘

비고: 각 국가별 책임을 5점 척도로 질문(책임 있다=매우 큰+어느 정도, 책임 없음 전혀+별로, 모름)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이번 전쟁 책임, 미국과 이란 중 누가 더 큰가: 둘이 비슷 43%, 미국 책임 더 크다 32%
50대의 44%, 진보층의 50%는 '이란보다 미국의 책임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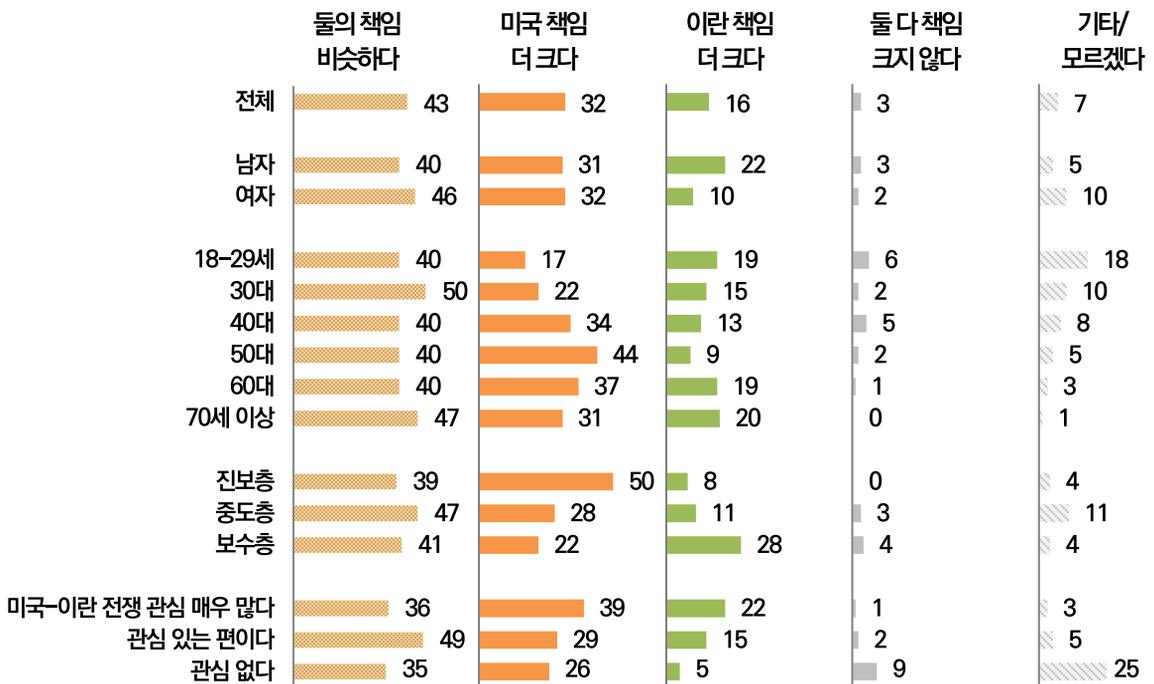
이처럼 미국·이스라엘·이란 각국이 이번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매우 큰 책임'의 강도에서는 차이가 확인된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과 이란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의 응답 조합을 통해, 사람들이 양국 중 어느 쪽에 더 큰 책임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이란 각각에 대한 책임 여부 응답을 교차해 보면, 크게 미국 쪽 책임이 이란 쪽 책임보다 더 크다고 보는 사람, 반대로 이란 쪽 책임이 미국 쪽 책임보다 더 크다고 보는 사람, 둘의 책임 수준이 동일하다고 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양국 다 이번 전쟁에 책임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둘의 책임 수준이 동일하다고 보는 사람이 43%로 가장 많다. 미국의 책임이 이란 책임보다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 32%, 반대로 이란의 책임이 미국 책임보다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 16%이다. 둘 다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거나(3%), 잘 모르겠다는 사람(7%)은 소수이다. 양 국 책임이 동일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미국 책임이 이란 책임보다 더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성별이나 연령대,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미국과 이란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인식이 40 ~ 50% 수준을 보인다. 특정 국가에 책임을 일반적으로 묻지 않는 '쌍방 책임' 인식이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50대에서는 미국의 책임이 이란의 책임보다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 44%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다. 진보층에서도 50%가 미국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며, 전쟁에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 중에서도 39%는 미국 책임이 더 크다고 답해,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응답(36%)과 엇비슷하다. 이란의 책임이 미국의 책임보다 더 크다는 응답은 보수층에서 28%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번 전쟁 책임, 미국과 이란 중 누가 더 큰가: 둘이 비슷 43%, 미국 책임 더 크다 32%
50대의 44%, 진보층의 50%는 '이란보다 미국의 책임 더 크다'

(단위 : %)



질문: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데 다음 각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이란
 비교: 각 국가별 책임을 5점 척도로 질문(책임 있다=매우 큰+어느 정도, 책임 없음 전혀+별로, 모름)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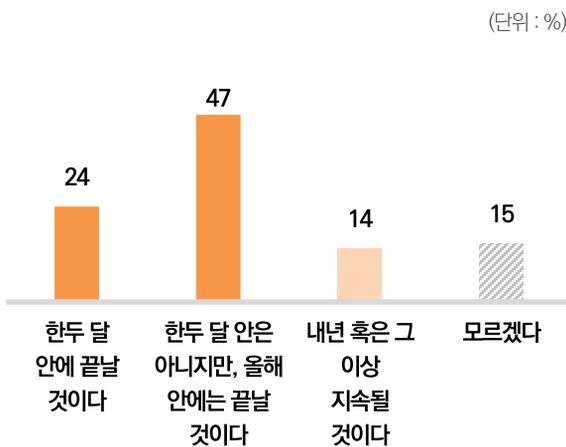
미국-이란 전쟁 전개 전망

10명 중 7명(71%), 이번 미국-이란 전쟁 '올해 안에 종결' 전망
4명 중 1명(24%), '한두 달 안'에 종전할 것... 68%는 '전쟁 확대 가능성' 있어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란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고 인식이 47%, '한두 달 안'에 끝날 것이라는 응답이 24%로 응답을 모두 합하면 10명 중 7명(71%)은 이번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내년 혹은 그 이후로, 장기전을 전망하는 비율은 14%로 낮은 편이다. 한편, 전쟁이 더 큰 규모의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68%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확전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24%에 그친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전쟁 종결 시점을 '올해 안'으로 비교적 단기(71%)로 보면서도,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은 높게 평가한다(68%). 조사 기간(3월 13~16일) 이후인 3월 18~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 사우스파르스(South Pars) 가스전을 타격했다. 사우스파르스는 이란 가스 생산의 약 70% 안팎을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 공급 인프라로, 단순 군사시설을 넘어 국내 전력·난방·석유화학 생산과도 맞물린 전략 거점으로 꼽힌다. 공격 이후 이란은 사우디·UAE·카타르 등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보복 대상으로 삼고 경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고, 이에 따라 역내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다는 보도도 이어진다. 이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해상 안전 우려가 커지고 유조선 운항이 제한되는 등 통항 여건이 악화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원유 공급 문제에 차질을 빚어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연내 종전을 예상하는 응답이 우세하지만, 이와 별개로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난다. 조사 시점에는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확전 가능성은 염두에 두되 전황이 연내에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향후 해상 교통 불안 등 전황이 더 악화될 경우, 응답자들이 전망한 '연내 종결' 인식도 흔들릴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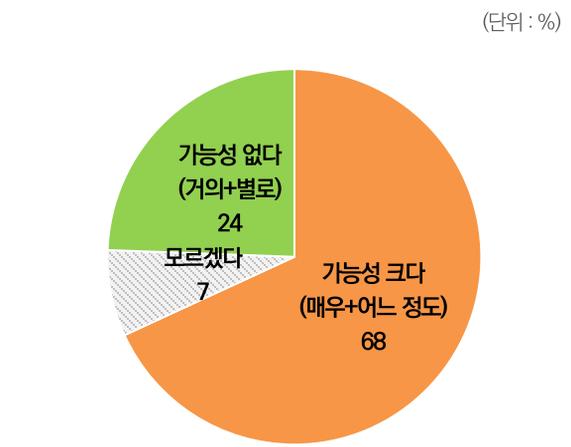
미국-이란 전쟁, 10명 중 7명(71%)이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전망



질문: 현재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13. ~ 16.

10명 중 7명(68%), 전쟁 확대 가능성 있어



질문: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더 큰 규모의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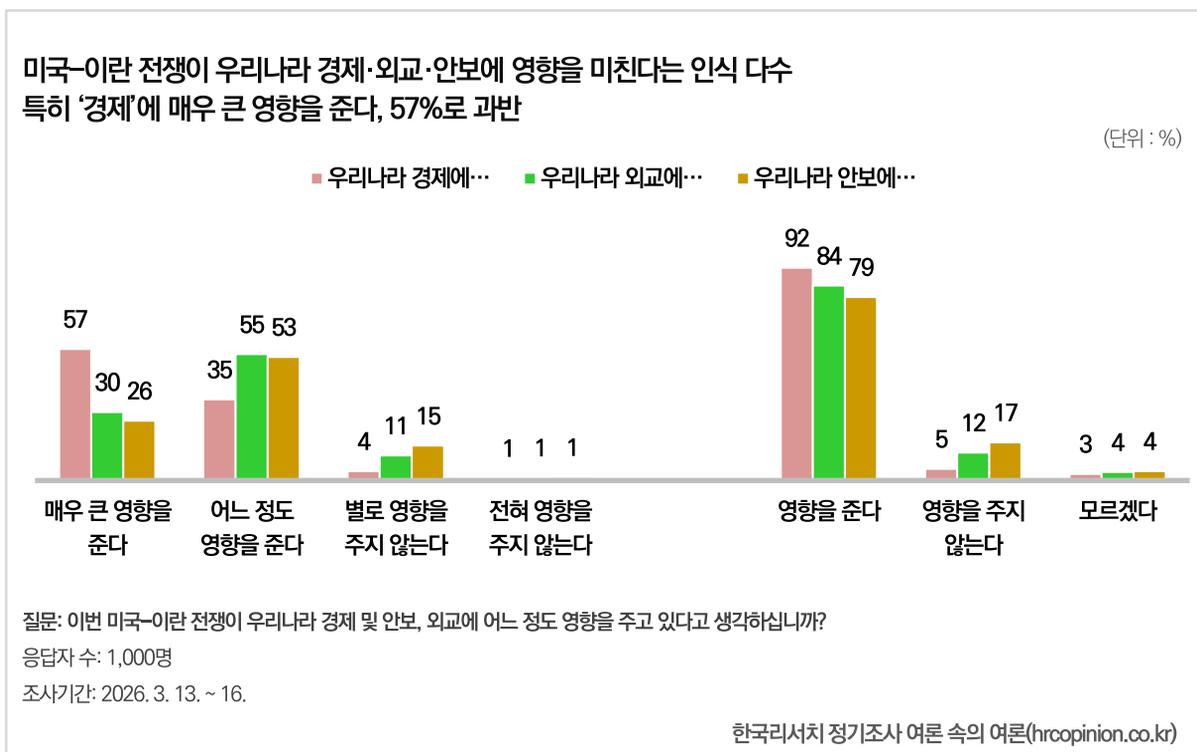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13. ~ 16.

4

미국-이란 전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정책 방향

미국-이란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다수 특히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57%로 과반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외교·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다. 특히 각 영역에서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적지 않다. 우선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92%로 가장 높고, 이 중 '매우 큰 영향'은 57%로 과반이다. '외교'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84%로 다수이며, '매우 큰 영향'은 30%다. '안보' 역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79%로 높고, '매우 큰 영향'은 26%이다.



18-29세는 미국-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 43%, 체감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전쟁 무관심 혹은 중요도 낮은 사람, 우리 경제·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력 낮게 인식

이번 전쟁이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부 집단별 인식을 살펴보았다. 성별·연령·이념 성향·전쟁 인식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는 이번 전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파급을 가장 크게 체감한다. 다만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체감 강도가 낮다. 또한 전쟁에 관심이 없거나 전쟁이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집단에서는 10명 중 1-3명만이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외교·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즉 전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데에는 다수가 공감하지만, 직접적 파급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는 전쟁 관심이나 중요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18-29세는 미국-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 43%, 체감도 낮은 편
전쟁 관여도 낮은 집단, 우리 경제·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력 낮게 인식**

(단위 : %)

	사례수 (명)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외교		우리나라 안보	
		매우 큰 영향 준다	영향 준다 (매우큰+어느정도)	매우 큰 영향 준다	영향 준다 (매우큰+어느정도)	매우 큰 영향 준다	영향 준다 (매우큰+어느정도)
		전체 (1,000)	57	92	30	84	26
성별							
남자	(495)	62	92	28	84	27	78
여자	(505)	52	92	31	85	24	81
연령							
18-29세	(150)	43	83	36	80	25	70
30대	(150)	57	89	35	85	28	76
40대	(169)	55	89	30	83	23	75
50대	(194)	61	95	25	85	23	80
60대	(179)	65	96	26	85	25	84
70세 이상	(158)	57	99	29	87	33	90
이념 성향							
진보층	(270)	69	97	36	90	27	82
중도층	(386)	50	89	27	81	22	75
보수층	(327)	57	92	28	83	29	82
전쟁 관심도							
매우 관심 많다	(318)	79	98	41	91	40	88
관심 있는 편이다	(540)	52	94	26	85	21	79
관심 없다	(142)	27	74	19	64	14	62
전쟁 중요도							
매우 중요	(148)	80	96	54	90	55	86
어느 정도 중요	(605)	62	96	29	89	25	85
중요하지 않음	(247)	31	81	17	68	10	61

질문: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 및 안보, 외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이념 성향 모름 응답 제외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13.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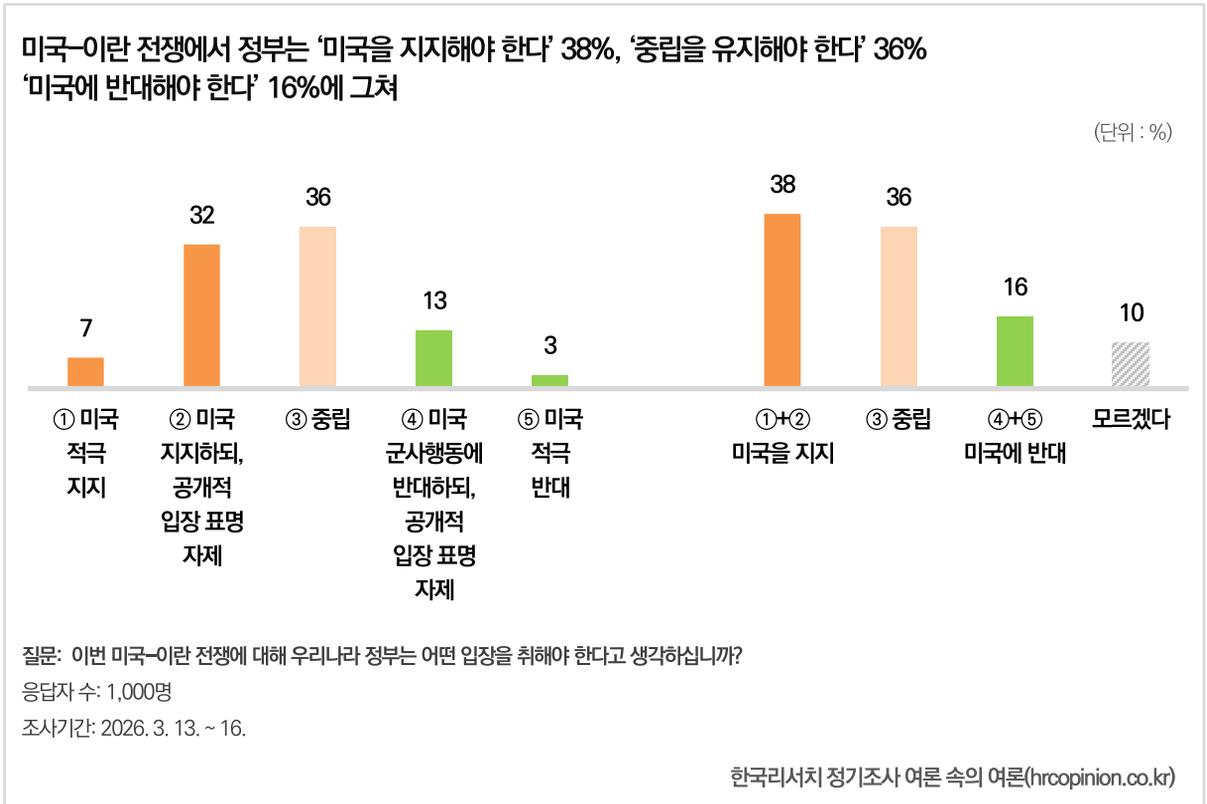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미국-이란 전쟁에서 정부는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 38%, '중립' 36%
'미국에 반대해야 한다'는 16%에 그쳐**

사람들은 이번 미국-이란 전쟁을 우리나라와 개인에게 영향이 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다. 더불어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미 간 연결성이 큰 상황에서, 응답자들이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지 확인하였다.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38%로 가장 높다. 이 중 '미국을 지지하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가 32%로, '지지'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은 16%(적극 반대 3% + 반대하되 공개 입장 표명 자제 13%)로, 지지 입장의 절반에 못 미친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36%로 '미국 지지'와 유사한 수준이다.

종합하면, 미국을 지지하더라도 공개적인 메시지는 절제하거나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과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파병'과 같은 방식이나 공개적 정치적 표명에는 거리를 두고, 해협 안전 확보 등 실질적 기여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고령층과 보수층, 미국-이란 전쟁에서 '미국 지지' 입장 취해야 전쟁 관여도 높을수록 미국 지지, 확전 가능성 있거나 미국에 매우 큰 책임 집단은 중립적인 태도 필요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은 전쟁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 인식이 높은 집단으로, 정부가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높다. 반면 4·50대는 중립 유지 응답이 40%대이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61%가 미국 지지를 택한 반면, 진보층은 중립 유지가 44%로 상대적으로 높다. [고령층과 보수층은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이 우리 경제·안보·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한미 협력 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미국 지지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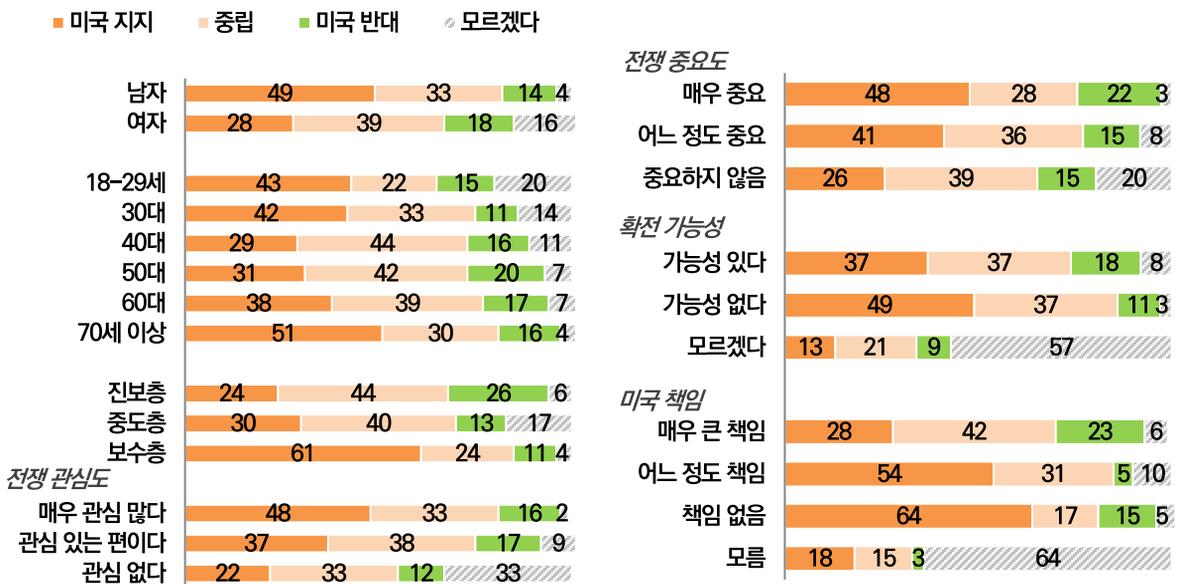
반면 중년층과 진보층은 전쟁이 국내에 미칠 파급과 대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 정부가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특히 [진보층은 미국이 우리 경제·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비교적 높아](#), 경제·안보적 부담과 확전 위험을 염두에 두고 중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번 전쟁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48%)과 전쟁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48%) 중에서는 절반 가량이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쟁을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일수록 한미 협력 관계와 안보 현실을 고려해 지지하는 입장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확전 가능성 인식에 따라서는 입장이 갈린다. 확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미국 지지 37%, 중립 37%로 팽팽하고 확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은 49%가 미국 지지를 택했다. 또한 미국이 전쟁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우리 정부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다. 한미 간 연결성이 크더라도, 책임 인식이 강할수록 특정 편을 공개적으로 드는 데 부담을 느끼고 대외 메시지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보거나 책임이 없다고 보는 집단에서는 미국 지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고령층과 보수층, 미국-이란 전쟁에서 '미국 지지' 입장 취해야
4·50대와 진보층, '중립' 입장이 미국 지지 응답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아
전쟁 관심도 높을수록 미국 지지, 확전 가능성 있거나 미국에 매우 큰 책임 집단은 중립적인 태도 필요 인식

(단위 : %)



질문: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미국 지지(적극 지지+지지하되 공개적 입장 표명 자제), 미국 반대(적극 반대+반대하되 공개적 입장 표명 자제)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5

미국-이란 전쟁 인식

미국과 이스라엘,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 및 과도한 군사작전이라는 인식 '이란의 군사적 대응' 정당하다 45%, 정당하지 않다 42%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인식을 미국·이스라엘 관점 군사작전 정당성, 이란 관점 군사적 대응 정당성, 전쟁비용 수용 차원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이스라엘 관점 군사작전 정당성'을 살펴보면 '미국·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30%)', '미국·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정당하다(26%)'는 인식이 10명 중 2-3명에 그친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60%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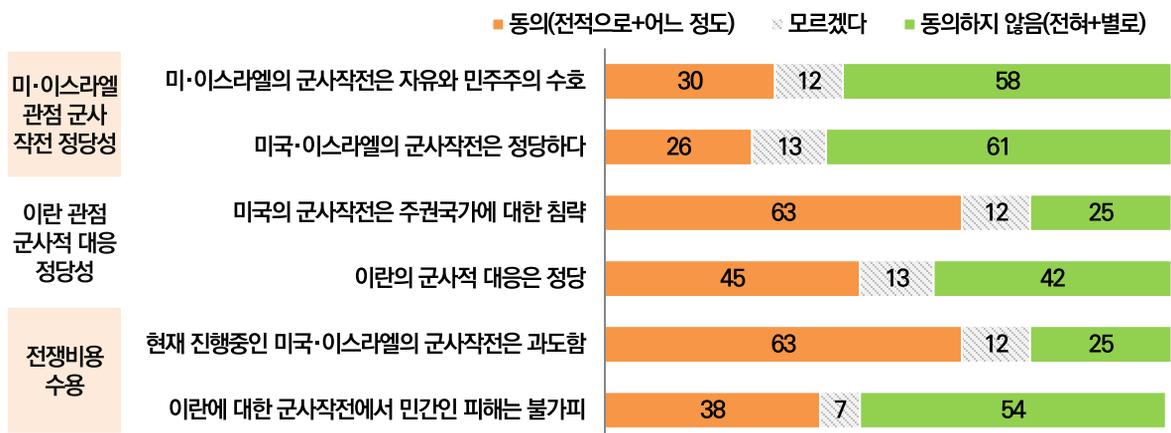
'이란 관점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보면 '미국의 군사작전은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이라는 인식이 63%로 다수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인식은 25%에 그친다. '이란의 군사적 대응은 정당하다'는 진술에 대해 45%는 동의하고 42%는 동의하지 않아 입장이 갈린다.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적하면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무력을 사용한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미국·이스라엘 군사작전 정당성(26%) 인식과 비교하면 이란의 군사적 대응 정당성이 19%포인트 높다.

'전쟁비용 수용'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63%로 다수이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인식은 25%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진술에는 과반이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54%), 동의도 38%로 적지 않다.

종합하면 미국·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침략' 혹은 '과도'하다는 평가가 우세한 반면, 이란의 군사적 대응 정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일부 공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미국과 이스라엘,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 및 과도한 군사작전이라는 인식
이란의 군사적 대응 정당하다 45%, 정당하지 않다 42%

(단위: %)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미·이스라엘 군사작전 평가, 고연령·진보·고관여층일수록 ‘침략’ 혹은 ‘과도’ 부정 인식 군사력 적극 확대 선호층, 이번 전쟁은 미국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집단에서 미·이스라엘 공습 정당성 없어… 반면 이란 방어 정당성에는 일부 동의

‘미·이스라엘 관점 군사작전 정당성’을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진보층일수록, 전쟁에 관심이 많거나 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할수록 정당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18-29세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정당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낮다. 국가 안보 정책 방향에서 ‘군사력 적극 확대’를 선택한 집단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무력을 통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이 강함에도, 절반 이상(53%)이 미·이스라엘 군사작전의 정당성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 안보 강화 필요성과 별개로, 대규모 공습이라는 수단과 그에 따른 피해·후폭풍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함께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는 사람들 역시 정당성 부여에 신중한 경향을 보인다(비동의 76%).

‘미국의 주권국가 침략’ 인식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미·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이라는 진술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진보층일수록, 전쟁 관여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동의 비율이 높다. ‘이란의 군사적 대응 정당성’은 강한 찬반으로 수렴하기보다 엇갈리는 양상이지만, 미·이스라엘 군사작전 정당성에 비해서는 세부 집단 전반에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특히 군사력 적극 확대집단에서도 미국의 공습에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가운데, 이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당성 평가가 갈리며 일부는 이를 ‘방어’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함께 확인된다. 미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중 55%도 이란 방어 정당성에 동의한다. 18-29세는 미·이스라엘 작전과 이란 대응 모두에서 적극적 동의나 강한 비판이 상대적으로 덜해, 판단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기보다는 분산되는 특징을 보인다.

‘전쟁비용 수용’ 측면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진보층일수록, 전쟁 관여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미·이스라엘 군사작전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높다. 군사력 적극 확대 집단에서도 절반가량(50%)이 과도하다고 본다. 또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에는 30세 이상에서 과반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보수층과 군사력 적극 확대 집단에서는 찬반이 비교적 팽팽하게 갈린다. 특히 미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는 집단에서도 ‘민간인 피해 불가피’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67%로 높아, 전쟁 수행 방식과 민간 피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모습이다.

종합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진보층일수록, 전쟁 관여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미·이스라엘 군사작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군사력 적극 확대 집단이나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 역시, 국가 안보 논리와 별개로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명분·정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군사행동으로 평가하는 경향이다. 한편 미·이스라엘 군사작전에 대해 부정적인 집단에서 이란의 군사적 대응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방어 정당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미·이스라엘 군사작전 평가, 고연령·진보·고관여층일수록 '침략' 혹은 '과도' 부정 인식
군사력 적극 확대 선호층, 이번 전쟁은 미국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집단에서
미·이스라엘 공습 정당성 없다는 시각... 반면 이란 방어 정당성에는 일부 동의**

(단위 : %)

사례수 (명)	미·이스라엘 관점 군사 작전 정당성				이란 관점 군사적 대응 정당성				전쟁비용 수용			
	미국·이스라엘 군사작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스라엘 군사작전은 정당하다		미국의 군사작전은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이다		이란의 군사적 대응은 정당하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이스라엘 군사작전은 과도하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하다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동의	비동의
전체 (1,000)	30	58	26	61	63	25	45	42	63	25	38	54
성별												
남자 (495)	36	57	34	58	61	31	49	43	57	34	42	53
여자 (505)	25	59	18	64	65	19	42	40	68	17	35	56
연령												
18-29세 (150)	36	43	28	47	48	28	31	45	50	29	45	42
30대 (150)	33	52	25	56	58	24	40	43	57	25	34	53
40대 (169)	26	63	21	65	64	24	45	40	65	24	34	59
50대 (194)	26	67	24	70	70	23	51	40	69	23	36	61
60대 (179)	32	59	28	63	66	26	48	42	61	29	41	53
70세 이상 (158)	31	61	32	62	70	25	55	41	73	21	42	55
이념 성향												
진보층 (270)	15	81	13	80	84	11	56	39	84	12	27	71
중도층 (386)	27	55	19	61	56	25	42	37	58	24	38	50
보수층 (327)	47	45	44	46	55	38	42	49	52	38	49	47
전쟁 관심도												
매우 관심 많다 (318)	33	63	32	64	67	28	55	42	64	32	43	55
관심 있는 편이다 (540)	30	59	25	63	65	24	44	44	66	22	38	57
관심 없다 (142)	25	43	16	48	45	21	29	34	48	21	31	44
전쟁 중요												
매우 중요 (148)	33	64	30	65	64	31	49	47	63	32	42	56
어느 정도 중요 (605)	32	60	27	62	67	24	48	42	65	25	38	57
중요하지 않음 (247)	25	50	20	56	53	23	36	37	57	22	38	47
국가 안보 정책 방향												
군사력 적극 확대 (284)	40	53	38	53	57	35	44	46	50	40	46	50
군사력 유지 (470)	28	63	23	66	68	22	47	43	70	20	37	58
외교와 협력 우선 (178)	27	66	22	71	73	22	54	39	74	22	34	61
모름 (68)	18	29	11	34	31	14	18	26	41	7	28	24
미국 책임												
매우 큰 책임 (564)	17	76	13	80	82	12	55	36	79	14	29	67
어느 정도 책임 (303)	51	39	43	43	49	38	42	48	54	34	54	40
책임 없음 (79)	62	34	67	30	17	78	17	80	14	83	58	40
모름 (54)	12	10	10	8	11	10	5	10	13	12	15	23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동의(전적으로+어느 정도)·비동의(전혀+별로) 응답 제시, 이념 성향 모름 응답 제외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13. ~ 16.

미국 군사작전의 명분 중 하나인 '이란 정권 교체' 공감한다 41%, 공감하지 않는다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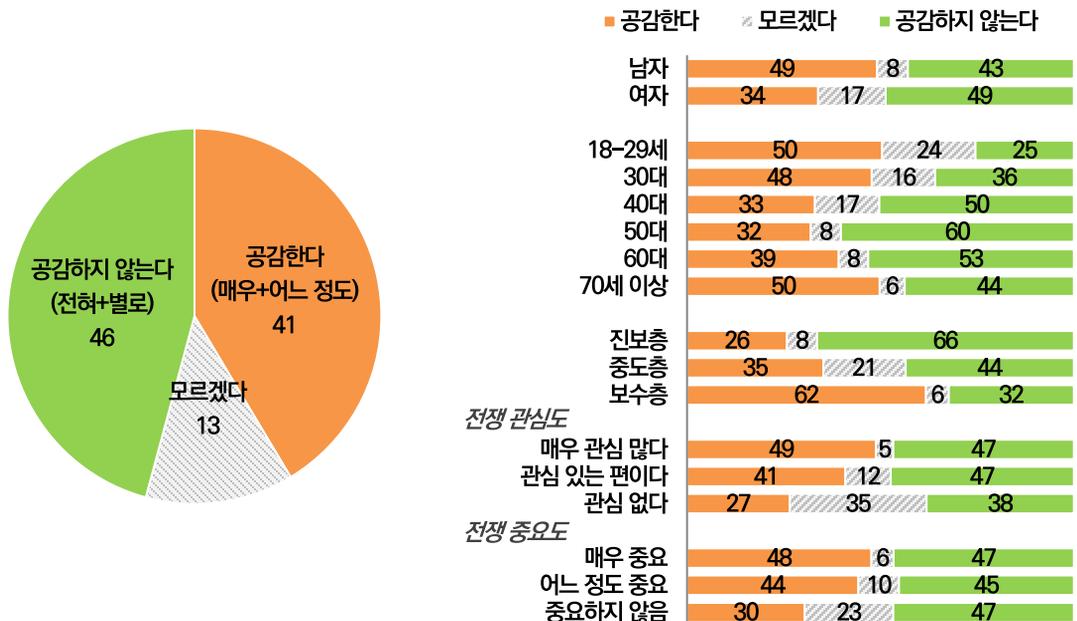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 과정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후 국방장관 아미르 나시르자데를 비롯해 군사·안보 분야 고위급 인사의 사망 소식도 잇따라 전해진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권 교체가 이번 군사작전의 공식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쟁 과정에서 고위 지도부가 연이어 타격을 받으면서, 이번 군사행동이 핵·안보 위협을 약화시키는 차원을 넘어 이란 체제의 변화 가능성까지 연상시키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

본 조사에서는 '미국이 이번 군사작전을 통해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공감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공감이 41%, 비공감 46%로 의견이 엇갈린다. 이란의 핵 개발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감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한편, 대규모 공습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방식 자체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2·30대와 70세 이상에서 절반가량이 정권 교체 목적에 공감한다. 보수층에서는 62%가 목적에 공감해 진보층(26%)과 격차를 벌린다. 전쟁 관심도가 매우 높거나 전쟁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공감 여부가 갈리나, 상대적으로 전쟁 관여도가 낮은 집단 대비 더 공감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내세웠던 명분인 '이란 정권 교체' 공감한다 41%, 공감하지 않는다 46%

2·30대, 70세 이상, 보수층, 전쟁 관심도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미국 군사작전 목적에 공감하는 사람 많아

(단위 : %)



질문: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이란의 정권 교체(체제 전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작전 목적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6

이란 핵 개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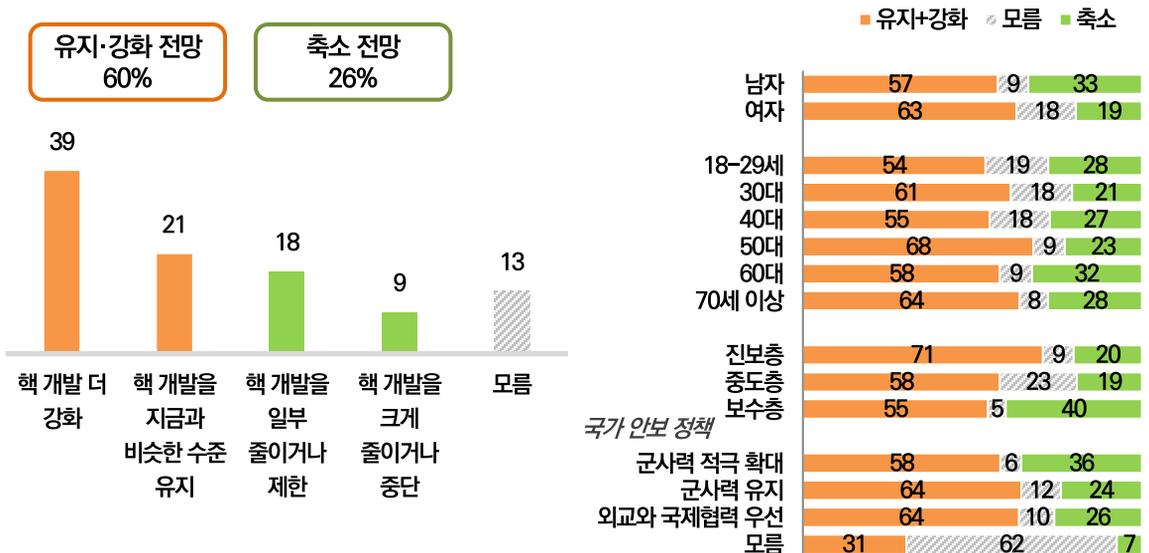
미국-이란 전쟁 이후 이란 핵 개발 '더 강화할 것' 39%, '지금 수준 유지' 21% 축소 전망은 4명 중 1명에 그쳐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해 왔다고 보고한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타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핵 역량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전쟁 이후 이란의 향후 핵 개발 전망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란이 '핵 개발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고,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21%)'한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5명 중 3명(60%)은 향후 이란이 핵 개발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핵 개발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크게 줄이거나 중단(9%)', '일부 줄이거나 제한(18%)'을 합쳐 26%로, 4명 중 1명 안팎에 그친다. 성, 연령,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이 유지 또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진보층에서는 71%가 유지·강화 전망이 두드러지고, 보수층에서도 55%가 같은 전망을 내놓는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핵 개발이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도 40%로 적지 않게 나타나, 진보층에 비해 전망이 갈리는 모습이다. 국가 안보 정책 선호 집단과 무관하게 향후 이란이 핵 개발을 유지 및 강화할 것이라는 인식 과반이다. 오히려 군사력 적극 확대를 선호하는 집단에서 이란의 핵 개발 축소를 전망하는 응답이 36%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 이후 이란 핵 개발 '더 강화할 것' 39%, '지금 수준 유지' 21%
핵 개발 크게 줄이거나 일부 제한, '축소 전망'은 4명 중 1명 수준에 그쳐

(단위: %)



질문: 이번 전쟁 이후 이란의 핵 개발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이념 성향 모름 응답 제외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3. 13. ~ 16.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6년 1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42,838명, 조사참여 2,41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3%, 참여대비 41.4%)
조사일시	• 2026년 3월 13일 ~ 3월 16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Research

